

어?  
하나는  
어디 있지?

글 · 에이미-질 르바인, 샌디 아이젠버그 사쏘  
그림 · 마고 메강크



# 100마리의 양

들판에 정말 많은 양들이 보여요.  
모두 다 모이면 100마리나 되네요!  
과연 이중에 한 마리가 사라진다 해도 알아챌 수 있을까요?  
누가 다 셀 수나 있을까요?  
아하! 목자 아저씨는 할 수 있군요.



목자는 100마리나 되는 귀여운 양들을 매일매일 세어 본답니다.



한번 세기 시작하면 다 셀 때까지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지만요.

목자는 오늘도 양을 세어 보고 있어요.

10

20

30

40



“1, 2, 3, …… 97, 98, 99.

이상하다? 왜 99마리뿐이지?”

양을 다 센 목자는 깜짝 놀랐어요.

아마 실수로 숫자를 잘못 센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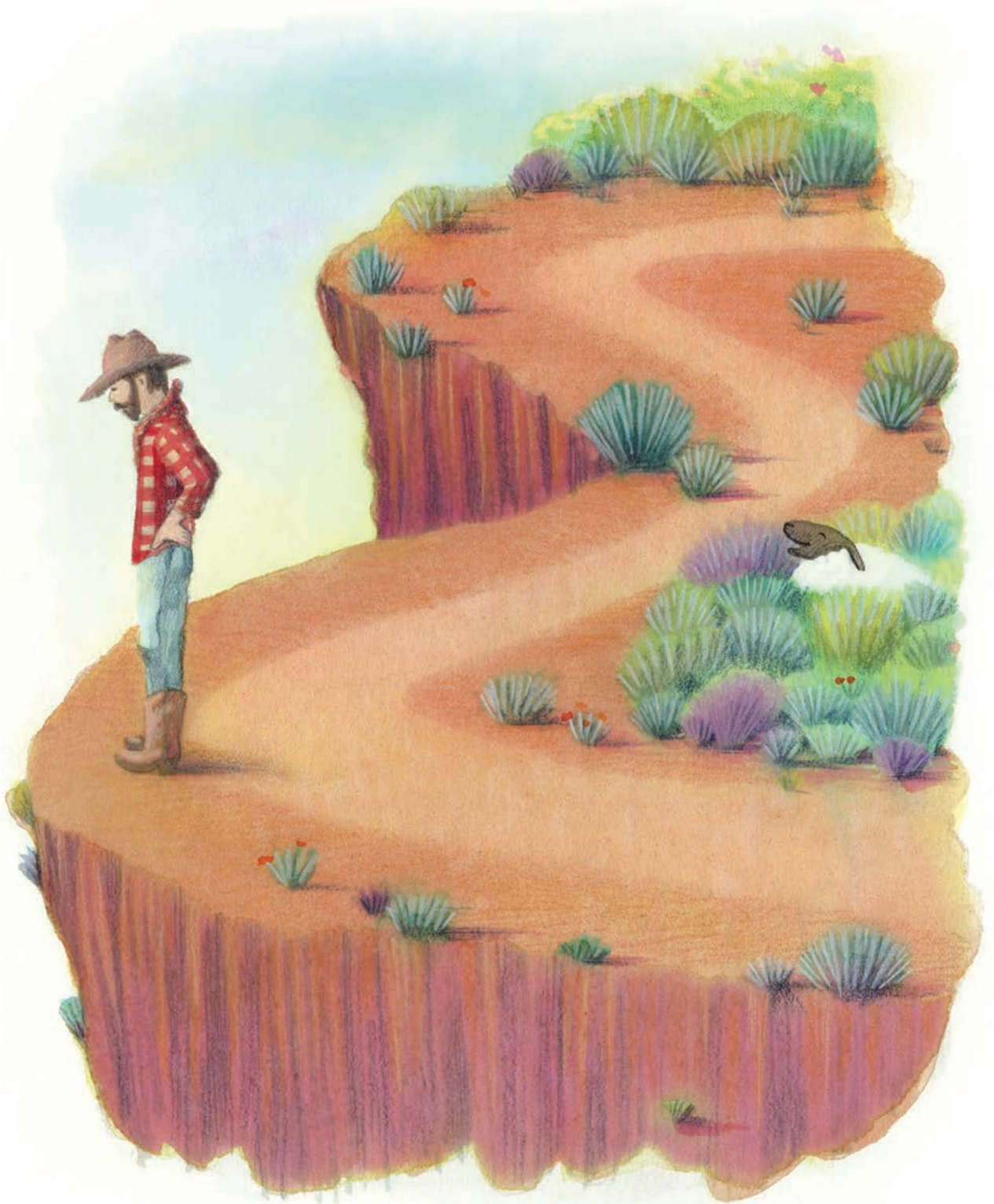
99마리가 아니라 100마리의 양이 있어야 했거든요.

목자는 다시 세어 보았어요.



그런데 어찌죠? 여전히 99마리뿐이에요.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100마리의 양을 모두 지켜야 했는데 말이에요!

걱정만 해서는 소용이 없었어요.  
목자 아저씨는 곧바로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섰어요.  
걷고, 또 걷고, 걷고, 또 걷고……  
열심히 찾아보았지만 양은 도무지 보이지가 않았어요.  
왼쪽을 살펴봐도 찾을 수 없었어요.



오른쪽을 살펴봐도 보이지 않았어요.  
목자는 귀를 쫑긋 세운 채 계속해서 양을 찾아 헤맸어요.  
그렇지만 양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메에~!”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목자는 후다닥 소리를 따라가 보았어요.

야호! 바로 여기 있었어요! 잃어버린 양을 찾았어요!







그 양은 너무나 지쳐 있었어요.  
목자를 따라 집에 돌아갈 힘이 없었지요.  
“으샤!”  
목자는 양을 어깨에 올려 태웠어요.

목자 아저씨는 잃어버린 양을 되찾아서 정말로 기뻐어요.  
그것은 축하받을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파티를 열었어요.



“뭘가 그렇게 기쁘세요?”

파티에 온 한 사람이 목자에게 물었어요.

“겨우 한 마리 때문에 축하 파티까지 열다니, 잘 이해가 안 돼요.  
여전히 아흔아홉 마리나 되는 양이 남아 있었잖아요.”

목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이 녀석이 없이는 너무 허전해요. 내 양떼는 이제야 완벽해졌어요!”

